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에 관한 연구 동향: 2001~2020년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김 소 회¹⁾

이 연 우²⁾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도구, 부모요인, 매개·조절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유형은 대부분 양적·조사연구(97.7%)로 나타났다.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조사와 관찰검사를 함께 실시한 경우(39.5%)가 가장 많았으며 점차 자료수집 방법이 간소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연구대상 중 유아는 만4세(42.2%)가 가장 많고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부모는 어머니의 비중(59.5%)이 아버지의 비중(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도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63%)가 많고 사용하는 연구도구의 다양성이 줄어들었으며, 표준화된 도구의 사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넷째, 부모요인은 양육태도요인(52.4%), 개인능력요인(14.8%), 자녀관계요인(9.8%) 순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양육태도 요인보다 개인능력과 자녀관계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섯째, 매개·조절변인으로 유아요인(63.6%)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표준화된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유아, 친사회적 행동, 부모 요인, 연구동향

1)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부경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youn97@hotmail.com)

I. 서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머리카락을 기부하게 되었어요(좌용철, 2017).” 한 지방신문에 실린 여중생들의 이야기다. 백혈병에 투병 중인 생면부지의 어린이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한 여중생들의 행동은 차를 훔치고, 또래를 폭행하는 무서운 중학생 이야기가 쏟아지는 뉴스들 사이에서 따뜻한 희망으로 다가온다. 우리는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사회에 통용되는 규범과 관습, 도덕을 준수하면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길 기대한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으며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행동들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가 반영된 나누기, 돕기, 협동하기와 같은 행동들은 친사회적 행동이라 일컬어진다(Kostelnik, Soderman, Whiren, Rupiper, & Gregory, 2019/2015).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기에 초점을 두어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 정의하기도 하며(Bar-Tal, 1976), 보상의 여부보다 행동의 측면을 강조하여 행동과 행동의 결과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되기도 한다(Freedman, Carlsmith & Sears, 1981). 또 반사회적 행동과 대조되는 타인을 돕는 행동으로 그 정의의 폭을 넓게 사용하기도 한다(Rushton, 1976; Spedeck, 1982).

친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정의처럼 그 유형에 대한 구분도 다양하다. Bar-Tal(1976)은 동

정, 자선, 기부, 주고 받기, 친절, 이타심, 나누기, 돕기로 구분하였으며, Babcock, Hartle와 Lamme(1995)는 감정이입, 나누기, 돕기, 의사소통, 근접성 추구하기, 지도성으로 구분하였다. Beatty(1999)는 자기 존중감, 자기조절, 타인 존중감, 우정, 관대, 협동, 도움주기, 존중으로 구분하였다. 이원영, 박찬옥과 노영희(1993)는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 형성 능력, 학교 적응 능력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김영옥(2003)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척도를 개발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 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 및 조절로 구분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은 이를 구분하는 유형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돕고, 나누고, 협동하고, 격려하는 것과 같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라 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지만 많은 연구들(Bar-Tal, Raviv & Goldberg, 1982; Dunn & Munn, 1986; Hoffman, 1984)은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적 성취의 결과이며 어릴 때부터 발달한다는 데 동의한다.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세 이전부터 발달되기 시작한다(Dunfield, Kuhlmeier, O'Connell & Kelly, 2011). 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기 선호 과제에서 3개월령의 유아가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연기자에게 혐오감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6~10개월령의 유아는 타인에게 도움을 준 연기자에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mlin & Wynn, 2011; Hamlin, Wynn, & Bloom, 2007).

12~18개월경에는 지시나 강화 없이도 장난감이나 물건을 타인에게 주고 싶어 하는 행동을 나타낸다(Warneken & Tomasello, 2007). 이후 연령이 증가하고(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사회인지가 발달함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또한 지속적으로 발달해 나간다(Brownell, Ramani & Zrewas, 2006). 특히 유아기는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친사회적 행동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다(Kostelnik, Stein, Whiren, & Soderman, 1993). 6세경까지 발달된 친사회성이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에 최소한의 발달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후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보고한 McClellan와 Katz(1992)의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유아기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유아의 개인 내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기질 등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미경, 2005; 성숙란, 신인숙, 2008; 황선희, 1996)과 부모의 소득, 학력, 직업, 교육기관의 재원기간, 문해 환경과 같은 외적 환경에 대한 연구들(김영옥, 2005; 박명희, 서봉언, 김민영, 2015; 박선이, 이미숙, 2015)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의 정서지능과 같은 부모와 관련된 연구들(문연심, 2004; 서영민, 김진경, 2009; 이정애, 2018; 장효은, 김춘경, 2016)이 수행되었다. 유아의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부모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Kochanska, 1990).

부모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Bandura(1997)의 사회학습이론은 친사회적 행동의 습득이 내적요인보다 외적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 제시한 모델링은 유아가 보상 없이도 관찰과 모방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지지하고 있다(서소정, 2006). Kostelnik 등(2019/2015)은 성인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사회적 지원 피라미드의 첫 3단계인 긍정적 관계 구축, 지지적 환경 제공, 교수 및 코칭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녀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장에 필요한 환경과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 부모가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기초가 됨을 설명해 준다. 우리는 출생 이후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신체발달 뿐 아니라 인지, 정서,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간다. 부모는 첫 인간관계의 대상이며,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처음 접하는 사회환경이 된다. 이러한 환경 안에서 유아는 부모로부터 사회화의 기초가 되는 지식과 행동을 습득하게 되며(조복희, 1999), 부모가 유아를 대하는 태도는 유아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경향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이원영, 1983). 이에 많은 연구들(박희연, 김지현, 2011; 배선미, 최영희, 2014; 이미현, 2009; 이상희, 신명숙, 2009; 정계숙, 이은하, 2017)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통제유형, 공감능력, 역할지능, 역량 등의 요인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육행동, 양육스타일 등에 대한 연구들(설경옥, 문혁준, 2006; 장영애, 이영자, 2008; 진순옥, 이정숙, 고인숙, 2013)도 이루어지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는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는 유아의 친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토대이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보다 잘 이해하고 부모의 지지를 촉구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조은진, 2003; 조은진, 이재은, 2019)는 관련 연구 모두를 범위에 두고 전체적인 동향의 이해에 중점을 둠으로 부모요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박유진, 권희림과 문은경(2017)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실행 연구들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유익하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요인을 살펴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와 관련된 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국내 연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물 43편으로 시기별 연구방법(연구유형과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 연구도구)과 연구내용(독립변인 중 부모요인, 매개·조절변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계획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다양한 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효과적이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부모교육을 수립 하도록 돕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구 유형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구 대상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구 도구 동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독립 변인인 부모요인의 내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매개·조절 변인의 내용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선정 과정

본 연구의 목적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부모요인의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디비피아(DBpia), 학지사·교보문고 스콜라(SCHOLAR)에 게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2001년부터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 ‘친사회성’을 키워드로 하고 ‘유아’,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각각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학회지인 ‘아동학회지’, ‘열린유아교육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대한가정학회지)’는 학회지 별로 재검토하여 키워드 검색에서 누락된 논문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두 결과를 합산하여 중복 검색된 논문을 제외하고 총 124편의 논문이 도출되었다. 검색된 124편의 제목, 초록, 내용을 확인하여 연구대상이 유아가 아닌 논문 3편,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보기 어려운 논문 38편, 부모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보기 어려운 논문 30편, 프로그램 개발, 척도 개발 관련 논문 2편, 국내 연구가 아닌 논문 1편,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포스터 논문 6편, 중복 게재된 논문 1편을 제외하여 31개의 학술지에서 총 43편이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종속변인으로 명시된 양적 연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다른 종속변인을 포함하는 연구는 포함되었으나, 연구대상이 유아가 아니거나 친사회적 행동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친사회적 행동 동기’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이 드러나지 않거나, 사회적 유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의 하위요인중 하나로 친사회성이 포함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하나의 독립된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둘째, 부모요인을 독립변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을 살펴보기 위함이므로 그 영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연구는 제외하고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부모-교사의 협력이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부모요인을 독립된 변인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나 ‘부모가 지각한 친사회적 행동’과 같이 부모가 검사지의 작성에만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 부모요인과 다른 요인이 독립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등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논문 내용을 확인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미한 부모요인이 하나 이상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국내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고 연구물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료 검토(peer-review) 과정을 거친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국내 연구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국외 연구논문과, 학술대회 자료집에 수록된 포스터 논문, 학위논문은 제외되었다.

제시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분석대상 논문 43편의 연도별 논문의 수는 표 1과 같다.

2. 분석 방법

연구대상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기

표 1.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의 수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논문수	0	0	1	2	2	2	1	5	4	2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3
논문수	4	3	3	2	4	2	2	3	1	0	

표 2 분석 방법

구분	세부항목	
연구방법	연구유형	조사연구, 조사연구+실험연구
		자료수집 방법(설문조사+검사방법(면접, 관찰, 실험))
	연구대상	유아(연령, 성별), 부모(성별)
	연구도구	교육부(1995),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척도(김영옥, 2003), 친사회적 행동검사(이원영 외, 1993), McGinnis와 Goldstein(1990) 수정·변안, PBQ수정·변안(권연희, 1995), PBQ와 MPBQ 수정·변안(이혜주, 1996), PBQ, MPBQ, OCS 수정·변안(이혜주, 1996; 박범실, 1987), Bar-Tal(1976)의 나누기과제
연구내용	독립변인	가정환경, 개인능력, 부부관계, 심리, 양육태도, 자녀관계, 기타
	매개·조절변인	유아, 부모, 교육기관

사회·정서 발달과 부모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고경필, 2017;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최정화, 임은미, 2019; 최혜순, 2014)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유아교육과 교수 2인으로 부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분석기준과 연구대상 논문의 적합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 타당도를 검토한 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논문은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5년, 2016~2020년으로 연구기간을 구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표 2와 같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구방법 분석 결과

연구 시기별 연구유형 및 연구자료 분석 결과

연구 시기별 연구유형 분석 결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는 2001~2002년에는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3년 이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연도별 연구량은 2015년까지 연구가 증가되다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유형은 모두 양적 연구로 조사 연구를 실

표 3. 연구 시기별 연구유형 분석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합계(%)
조사연구	4	14	16	8	42(97.7)
조사연구+실험연구	1	0	0	0	1(2.3)
합계(%)	5(11.6)	14(32.6)	16(37.2)	8(18.6)	43(100)

행하였으며 이 중 1편(2.3%)만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함께 실시한 중복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연구유형이 조사연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시기별 연구유형의 분석결과 는 표 3과 같다.

연구자료 수집 방법 분석 결과.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의 종속변인, 독립변인, 매개·조절변인 등에 대해 연구 전반에 걸쳐 사용한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설문조사만 실시한 경우는 5편(11.6%)이었으며 대부분 설문조사 외에도 면접검사, 관찰검사, 실험검사를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관찰검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17편(3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접검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9편(20.9%), 면접검사와 실험검사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5편(11.6%)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한 가지 검사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26편으로 60.4%를 차지하였으며, 설문조사와 두 가지 검사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12편으로 27.9%를 차지하였다. 두 가지 검사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05년까지 2편(4.7%), 2010년까지 4편(9.3%), 2015년까지 4편(9.3%), 2020년까지 2편(4.7%)으로 전체 연구에 대비해 최근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각 시기별 연구편수와 비교하여 보면 2005년까지 40%, 2010년까지 28.6%, 2015년까지 25%, 2020년까지 25%로 2006년 이후 두 가지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표 4. 연구 시기별 연구자료 수집 방법 분석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합계(%)
설문조사	0	2	3	0	5(11.6)
설문+면접검사	2	4	3	0	9(20.9)
설문+관찰검사	1	4	6	6	17(39.5)
설문+실험검사	0	0	0	0	0(0)
설문+면접+관찰검사	0	2	1	1	4(9.3)
설문+면접+실험검사	2	1	1	1	5(11.6)
설문+관찰+실험검사	0	1	2	0	3(7.1)
합계(%)	5(11.6)	14(32.6)	16(37.2)	8(18.6)	43(100)

경우가 40%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점차 간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시기별 연구자료 수집 방법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대상 분석 결과

유아. 분석논문의 연구대상 중 유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유아 10,399명 중 만4세가 4,391명(42.2%), 만5세가 3,755명(36.1%), 만3세가 1,169명(11.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만4세 1,703명(16.4%)이 포함된 인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만5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5,228명(50.3%), 여아가 5,030명(48.4%)으로 남아의 비중이 1.9%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연구대상 중 부모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767명 중 어머니가 7,603명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 3,674명(28.8%), 혼합대상 1,490명(11.7%)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참여 비중이 아버지의 비중보다 30.7%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비중은 2006년 이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6년 이후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연구 시기별 부모 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도구 분석 결과

친사회적 행동검사에 사용된 연구도구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친사회적 행동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는 총 8가지이며, 그 중 김영옥(2003)이 개발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21편(48.8%)으로 가장 많았다.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Skill

표 5. 연구대상 중 유아 분석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합계(%)
연령	만2	0	0	32	0	32(0.3)
	만3	160	193	747	69	1,169(11.2)
	만4	421	660	2,749	561	4,391(42.2)
	만5	640	910	1,465	740	3,755(36.1)
	만6	0	231	93	164	488(4.7)
	만3~5	0	280	221	57	558(5.4)
	무응답	0	0	0	6	6(0.1)
합계(%)		1,221(11.7)	2,274(21.9)	5,307(51)	1,597(15.4)	10,399(100)
성별	남	630	1,127	2,670	801	5,228(50.3)
	여	591	1,067	2,637	735	5,030(48.4)
	무응답	0	80	0	61	141(1.3)
	합계(%)	1,221(11.7)	2,274(21.9)	5,307(51)	1,597(15.4)	10,399(100)

표 6. 연구대상 중 부모 수 분석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합계(%)
부	0	522	2,979	173	3,674(28.8)
모	292	1,776	4,394	1,141	7,603(59.5)
혼합	954	80	0	456	1,490(11.7)
합계(100)	1,246(9.8)	2,378(18.6)	7,373(57.7)	1,770(13.9)	12,767(100)

표 7. 연구도구 분석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합계(%)
교육부(1995)	0	1	0	0	1(2.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척도 (김영옥, 2003)	1	5	8	7	21(48.8%)
친사회적 행동검사(이원영외, 1993)	2	5	3	0	10(23.3%)
Skill Situation Measure 수정 · 변안	0	1	1	0	2(4.7%)
PBQ수정 · 변안(권연희, 1995)	0	1	0	0	1(2.3%)
PBQ와 MPBQ수정 · 변안(이혜주, 1996)	0	1	3	1	5(11.6%)
PBQ, MPBQ, OSCS 수정 · 변안 (이혜주, 1996; 박범실, 1987)	0	0	1	0	1(2.3%)
Bar-Tal(1976)의 나누기과제	2	0	0	0	2(4.7%)
합계(%)	5(11.6%)	14(32.6%)	16(37.2%)	8(18.6%)	43(100%)

Situation Measure'를 수정 · 변안한 이원영, 박찬옥과 노영희(1993)의 '친사회적 행동검사'가 10편(23.3%), 마찬가지로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Skill Situation Measure'를 수정 · 변안하여 사용한 연구가 2편(4.7%)으로 28%를 차지하였다. Weir와 Duveen(1981)의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와 Doescher(1986)의 'Modified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를 수정 · 변안한 이혜주(1996)의 연구를 사용한 연구가 5편으로 11.6%를 차지하였다. Bar-Tal(1976)의 나누기과제를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한

연구 2편(4.7%), 교육부(1995)에서 개발된 '유아 관찰 척도' 중 사회생활과 관련된 측정도구를 활용한 연구가 1편(2.3%), Weir와 Duveen(1981)의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를 수정 · 변안한 권연희(1995)의 연구가 1편(2.3%), 이혜주(1996)의 연구와 Pease, Clark와 Crase(1979)의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Preschool Manual'을 수정 · 변안한 박범실(1987)의 연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연구가 1편(2.3%)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연구의 도구를 활용한 연구와 국외 연구의 도구를 활용한 연구

의 비율이 약 50%로 비슷하였으며, 표준화된 도구는 언급되지 않았다.

제시된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37%)보다 연구에 따라 수정하는 경우(63%)가 26% 더 많았다. 특히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척도’를 사용한 21편 중 16편(76.2%)이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척도가 제시한 관찰을 수행하였다고 보고한 경우는 4편(19.1%)에 불과하였다. 또 관찰하지 않고 평소모습을 떠올려 검사한 경우가 5편(23.8%), 관찰 유무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12편(57.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연구를 활용한 연구들에서 모두 면접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과 확인한 차이가 있다. Bar-Tal(1976)의 나누기과제 역시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실험방식은 유지되었으며 2005년 연구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친사회적 행동을 검사하는 연구도구는 2005년까지에서 3가지만 다루어 졌으나 이후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두 가지 연구도구만을 사용하여 연구도구의 다양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중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에 편중(87.5%)되어 검사도구의 획일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연구내용 분석 결과

독립변인 중 부모요인 분석 결과

분석대상 논문의 독립변인에 포함된 부모요인은 동일연구 내에서 중복 포함된 18개 요인을 포함하여 총 61개의 요인으로 이를 가정한 경, 개인능력, 부부관계, 심리, 양육태도, 자녀

관계,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 중 부모요인의 분석기준은 유아기 부모교육의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이소희, 이민경, 2004; 고경필, 2017), 유아의 적응 및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해 메타회귀 분석한 선행연구(김영희, 김대광, 2017),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김원숙, 2019)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분석결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중 양육태도요인(52.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능력요인(14.8%), 자녀관계요인(9.8%)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기 별로 살펴보면 2015년까지는 양육태도요인이 평균 5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20년까지에는 16.7%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 2015년까지 평균 8%이던 개인능력요인이 2020년까지에서 41.7%로 대폭 높아졌으며,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평균 6%에 불과하던 자녀관계요인이 2020년까지에는 25%로 증가되었다. 즉 전체연구 대비 부모의 양육태도요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연구에서는 태도보다 개인능력과 자녀관계요인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중 부모요인의 시기별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기준에 따라 구분된 부모요인의 세부내용은 표 9와 같다. 부모요인 중 가장 많은 세부내용이 포함된 양육태도요인에서는 양육태도(25%), 양육행동(1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능력요인의 세부내용 중에는 공감능력(33.3%), 정서지능(22.2%)과 정서표현성(22.2%)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관계요인에는

표 8. 독립변인 중 부모요인 분석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합계(%)
가정 환경	1	1	3	0	5(8.2)
개인능력	0	2	2	5	9(14.8)
부부관계	1	0	0	1	2(3.3)
심리	0	1	3	1	5(8.2)
양육태도	2	15	13	2	32(52.4)
자녀관계	2	1	0	3	6(9.8)
기타	0	1	1	0	2(3.3)
합계(%)	6(9.8)	21(34.4)	22(36.1)	12(19.7)	61(100)

표 9. 부모요인 세부내용

부모요인	세부내용
가정 환경(5)	가족 분위기(1), 문해 환경(1), 소득 및 학력(1), 일반적 특성(1), 직업유형(1)
개인능력(9)	공감능력(3), 공동체생활역량(1), 역할지능(1), 정서지능(2), 정서표현성(2)
부부관계(2)	결혼만족도(1), 부부관계 유대감(1)
심리(5)	비합리적 신념(1), 심리적 안녕감(1), 심리적 자세(1), 양육스트레스(2)
양육태도(32)	대화유형(1), 미디어중재유형(1), 사회화전략(2), 양육스타일(1), 양육신념(3), 양육참여(3), 양육태도(8), 양육행동(6), 역할만족도(1), 의도적 통제(1), 자녀성숙행동기대(3), 통제유형(2)
자녀관계(6)	부모-자녀관계 유형(3), 부모-자녀상호작용(1), 부모-자녀의사소통유형(1), 부모의 자녀애착(1)
기타(2)	부모의 스포츠참여(1), 종교성(1)

부모-자녀관계 유형(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요인으로 부모의 스포츠참여, 종교성이 포함되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의 시도가 관찰되었다.

매개·조절변인 분석 결과

매개·조절변인 분석결과 표 10과 같이 전

체 분석대상 중 41.8%에 해당하는 18편이 매개·조절변인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연구 내에서 중복 포함된 요인까지 총 22가지 요인이 드러났으며 이를 유아, 부모,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중 유아요인이 63.6%로 가장 많고 독립변인 외의 부모요인 22.7%, 교육기관요인이 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표 10. 매개·조절변인 분석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합계(%)	
매개변인	유아	2	1	3	1	7(31.8)
	부모	0	1	1	2	4(18.2)
	교육기관	0	0	2	0	2(9.1)
조절변인	유아	0	2	3	2	7(31.8)
	부모	0	0	1	0	1(4.5)
	교육기관	1	0	0	0	1(4.5)
합계(%)	3(13.6)	4(18.2)	10(45.5)	5(22.7)	22(100)	

표 11. 매개·조절변인 세부내용

매개·조절변인	세부내용
유아(14)	공감능력(2), 기질(1), 도덕적 판단(1), 성별(3), 의도적 통제(1), 자기 조절력(1), 자기 효능감(1), 정서지능(1), 정서표현(1), 정의적 실행기능(1), 조망수용능력(1)
부모(5)	공감능력(1), 부부친밀감(1), 양육태도(1), 자녀성숙행동기대(1), 정서지능(1)
교육기관(3)	교수 효능감(1), 유아-교사 상호작용(1), 프로그램(1)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을 연구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유아요인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외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진함을 알 수 있다.

매개·조절변인의 요인별 세부내용은 표 11과 같다. 유아요인의 세부내용에는 성별(21.4%)과 공감능력(14.3%)을 다룬 연구가 총 5편(35.7%)이었으며 그 외에 기질(7.1%), 도덕적 판단(7.1%), 의도적 통제(7.1%) 등 다양한 변인들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요인과 교육기관요인의 세부내용에는 각각 다른 변인들을 다루었다. 이는 매개·조절변인이 포함된 연구의 수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 이후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시사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이에 2001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 중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과 관련된 논문 43편을 선정하여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유형은 대부

분 양적 조사연구(97.7%)이며, 자료수집 방법은 설문조사와 관찰검사를 병행한 연구(39.5%)가 가장 많았다.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한 1편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조사연구만 실행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가 양적 연구이면서 부모요인이 독립변인으로 드러나는 연구만 선정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료수집에 있어 대부분 설문조사와 함께 면접검사, 관찰검사, 실험검사를 혼합하여 실시하였으나 3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까지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부모교육 관련 국내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고경필, 2017)에서 과거에는 부모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문헌조사나 관찰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설문지 방법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유아기 부모교육 관련 국내 학위논문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한이혁, 2007)에서도 설문조사 방법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수행하기 쉬운 연구유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연구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하거나 여러 가지 자료수집 방법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것과 같이 보다 다양한 연구유형을 수용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자질이 요구된다.

둘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구대상 중 유아는 만4세(42.2%)가 가장 많고 남녀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며, 부모는 어머니의 비중(59.5%)이 아버지의 비중(28.8%)보다 30.7%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박유진 외, 2017; 조은진, 이재은, 2019)에서 만5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전체 유아의 16.4%를 차지하는 만4세의 패널 조사 자료가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라 짐작된다. 만3세~만5세의 비중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만2세의 참여도 확인 되었으나 그 참여율이 0.3%(1편)에 불과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2세 이전부터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연구결과(Dunfield et al., 2011)와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만2세 시기의 반응이 만7세에 보이는 반응과 유사하다는 연구결과(Radke-Yarrow & Zahn-Waxler, 1984)를 고려할 때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어린 유아일수록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의 보살핌만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접근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에서 어머니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유아기 부모교육에 관한 연구(고경필, 2017)에서 어머니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결과와 차이가 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저 출산이라는 시대적 변화는 자녀의 양육에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채화영, 2012), 아버지의 친밀하고 따뜻한 양육참여는 자녀의 학업과 사회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정 외, 2012).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귀납적 추론과 훈육을 할 때 자녀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ssens & Gerris,

1992; Sturges, Dunn, & Davies, 2001). 아버지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설경옥, 문혁준, 2006; 양경수, 2011; 장영애, 이영자, 2008) 또한 아버지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를 연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구도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들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63%)가 많았으며, 사용되는 연구도구의 다양성이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연구(72.1%)에서 김영옥(2003)과 이원영 외(1993)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김영옥(2003)의 도구가 전체 연구도구의 87.5%를 차지하였다. 조은진과 이재은(2019)의 연구에서도 2015년 이후 김영옥(2003)의 연구도구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이원영 외(1993)의 도구가 개별 면접용인 반면 김영옥(2003)의 도구는 관찰용으로 검사 수행이 비교적 쉽고, 간편하게 수정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알맞게 연구도구를 수정하였는데 대부분 기존 도구의 평가항목을 줄이고, 평정자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연구도구의 선택 폭이 좁고, 연구도구가 그대로 사용하는데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여러 가지 부모

요인 중 양육태도요인(52.4%)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참여, 대화유형, 미디어중재유형, 양육스타일과 같이 실질적인 양육태도와 관련된 항목의 비중이 62.5%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성숙행동기대, 양육신념, 통제유형, 사회화전략, 역할만족도, 의도적통제와 같이 양육태도의 근거가 되는 정서 관련된 항목이 37.5%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 관련 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는 최혜순(2014)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관련 연구에서 양육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고정필(2017)의 연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양육태도보다 개인능력과 자녀관계요인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은 이를 관찰하고 모방하는 모델링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 부모가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주면 이를 보고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이 발달하는 것이다(Ladd, 2005). 따라서 부모가 효과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만큼이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감능력, 정서지능과 같은 개인 능력을 갖추는 것은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부분의 유아가 자신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사회적으로 반응한다는 점(Eisenberg et al., 2006)을 고려할 때, 부모가 유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아

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Kostelnik et al., 2019/2015).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위한 부모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요인 세부내용의 기타항목에는 부모의 스포츠참여가 포함되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스포츠참여 정도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과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유아의 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요인의 범주가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의 매개·조절변인은 유아요인(63.6%), 부모요인(22.7%), 교육기관요인(13.6%)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유아의 생물학적 요인과 인지발달,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와 같은 유아 내적 요인들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Kostelnik et al., 2019/2015)이 부모요인과 함께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아요인의 세부내용 중 유아의 성별, 공감능력 이외에는 중복되는 항목 없이 각각 하나씩만 고려되고 있어 관련 내용의 효과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대부분(99.6%)이 만3세~만6세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비중이 많을 것으로 추측됨에도 교육기관요인이 가장 적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또래 또는 교사의 다양한 요인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김미영, 2006; 김정아, 2009)을 고려할 때 아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유아를 둘러싼 주요 외부 환경인 가정과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살펴보는 연구가 더 많이 실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논문은 국내 학술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다 일반화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국외 학술지나 학위논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 관련 부모요인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이 외의 종속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변인이나 변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또는 주제어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추세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된다. 셋째, 분석 대상 논문들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탕이 된 주요 이론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각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고려는 관련된 연구를 계획할 때 연구의 근거와 기반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추후 분석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모요인을 파악

하여 향후 부모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연구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친사회적 행동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연구도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 고경필 (2017). 유아기 부모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연구*, 17(24), 433-459.
- 교육부 (1995).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초한 유아 관찰척도. 서울: 대한교과서.
- 권연희 (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2005). 유아의 개인 내적 특성에 따른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5(2), 129-155.
- 김미영 (2006).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 향상에 미치는 친사회적 지도방법의 효과. *인간발달연구*, 13(4), 1-15.
- 김영옥 (200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평가 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24(5), 105-118.
- 김영옥 (2005).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9(4), 81-105.
- 김영환, 이승민, 강두봉 (2017). 부모교육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 *교육문화연구*, 23(3), 75-94.
- 김영희, 김대광 (2017). 부모요인이 유아의 적응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회귀분석.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3), 255-282.
- 김원숙 (2019).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연구*, 1(2), 30-45.
- 김은정, 방희정, 안제원, 김미주, 오수경, 신다원 (2012). 창작 그림동화책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191-207.
- 김정아 (2009). 전래놀이가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12, 31-43.
- 문원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박명희, 서봉언, 김민영 (2015). 부모 소득 및 학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동복지연구*, 13(1), 37-54.
- 박범실 (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이, 이미숙 (2015). 가정의 문해 환경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문집*, 34(1), 1-23.
- 박유진, 권희림, 문은경 (2017). 유아 친사회적 행동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105, 129-155.
- 박희연, 김지현 (2011). 어머니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지속가능성연구*, 5(1), 43-69.

- 배선미, 최영희 (2014).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 유아의 정서 표현을 매개로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389-400.
- 서소정 (2006).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의 요구전략, 언어발달, 어머니의 친사회성에 관련된 양육신념 및 사회화전략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87-310.
- 서영민, 김진경 (2009). 외동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다중지능,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349-369.
- 설경옥, 문혁준 (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7), 1-9.
- 성숙란, 신인숙 (2008).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34, 115-128.
- 양경수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2), 75-84.
- 이미현 (2009).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통제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0(2), 89-101.
- 이상희, 신명숙 (2009).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자기 통제력의 차이. **부모교육연구**, 6(2), 49-62.
- 이소희, 이민경 (2004). 국내의 부모교육 관련 학위논문의 분석: 1970년대 이후 부모교육 연구동향 중심으로. **부모교육연구**, 1(1), 107-133.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 65-92.
- 이정애 (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친사회적 행동 및 공감능력과 관계 연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4), 5-23.
- 이혜주 (1996). 친사회적 행동훈련이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 사회적 책임감, 친사회적 행동동기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애, 이영자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장효은, 김준경 (2016). 부모의 자녀 애착과 정서지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기질에 따른 차이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1), 127-154.
- 정계숙, 이은하 (2017).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모 공동체생활 역량 요소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연구. **교육혁신연구**, 27(2), 49-77.
- 조복희 (1999). **유아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조은진 (200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비판적 문헌 고찰과 연구 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7(4), 181-202.

- 조은진, 이재은 (2019).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40(1), 13-25.
- 좌용철 (2017). 백혈병 환자에게 머리카락 기부 '10대 천사들' 화제. *제주의 소리*. <http://www.jeju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95292>에서 2020년 6월 3일 인출.
- 진순옥, 이정숙, 고인숙 (2013).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참여 및 양육스타일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8(1), 109-126.
- 채화영 (2012).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정화, 임은미 (2019). 놀이를 통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1037-1056.
- 최혜순 (2014). 유아사회교육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9(6), 195-223.
- 한이혁 (2007). 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관련 학위논문의 경향 분석: 1996~2005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희 (1996). 유아의 연령, 성 및 기질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훈련효과 분석. *유아교육논총*, 6(1), 67-90.
- Babcock, F., Hartle, L. & Lamme, L. L. (1995). Prosocial behaviors of five-year-old children in sixteen learning: activity center.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9(2), 113-127.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Bar-Tal, D. (1976). *Prosocial behavior-Theory and research*. New York: Wiley & Sons, Inc.
- Bar-Tal, D., Raviv, A., & Goldberg, M. (1982). Helping behavior among preschool children: An observa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3(2), 396-402.
- Beatty, J. J. (1999). *Prosocial guidance for the preschool child*. NJ: Merrill Prentice Hall.
- Brownell, C. A., Ramani, G. B., & Zrewas, S. (2006). Becoming a social partner with peers: Cooperation and social understanding in one- and two-year-olds. *Child Development*, 77, 803-821.
- Doescher, S. M. (1986). *Impact of prosocial classroom and home learning programs on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regon State University.
- Dunfield, K., Kuhlmeier, V. A., O'Connell, L., & Kelley, E. (2011). Examining the diversity of prosocial behavior: Helping, sharing, and comforting in infancy. *Infancy*, 16(3), 227-247.
- Dunn, J., & Munn, P. (1986). Siblings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 265-284.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L.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 R.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3, 646-718. New York: Wiley.
- Freedman, J. L., Carlsmith, J. M. & Sears, D. O.

- (1981). *Social psychology*(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mlin, J. K., & Wynn, K. (2011). Five- and 9-month-old infants prefer prosocial to antisocial others. *Cognitive Development*, 26, 30-39.
- Hamlin, J. K., Wynn, K., & Bloom, P. (2007). Social evaluation by preverbal infants. *Nature*, 450, 557-559.
- Hoffman, M. L. (1984). *Interaction of affect and cognition in empathy*. In C. E. Izare, J. Kagan, & R. B. Zajonc(Eds.), *Emotions, cognitions, and behavior*. Cambridge, MA: Combridge University Press.
- Janssens, J. M. A. M., & Gerris, J. R. M. (1992). *Child rearing, empathy, and prosocial development*. In J. M. A. M. Janssens & J. R. M. Gerris (Eds.), *Child rearing: Influence on prosocial and moral development*(pp. 57-75). Amsterdam: Swets & Zeitlinger.
- Kochanska, G. (1990). Maternal belief as long-term predictors of mother-child interaction and report. *Child Development*, 16, 134-143.
- Kostelnik, M. J., Soderman, A.K., Whiren, A. P., Rupiper, M. L., & Gregory, K. M. (2019). 2판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역). 서울: 교문사. (원본 발간일, 2015)
- Kostelnik, M. J., Stein, L. C., Whiren, A. P., & Soderman, A. K. (1993).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Delmar Publishers Inc.
- Ladd, G. W. (2005). *Children's peer relations and social competence: A century of progres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McClellan, D., & Katz, L. G. (1992). Assessing the soci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 checklist of social attributes. *Dimensions of Early Childhood*, 21(1), 9-10.
- McGinnis, E., & Goldstein, A. (1990). *Skill streaming in early childhood*. Champaign, IL: Research Press.
- Pease, D., Clark, S. G., & Crase, S. J. (1979).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school-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Iowa State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 Radke-yarrow, M., & Zahn-Waxler, C. (1984). *Roots, motives, and pattern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J. Reykowski, T. Karylowski, D. Bar-Tal, & E. Staub(Eds.), *Origins and maintenance of prosocial behaviors*(pp. 81-99). New York: Plenum Press.
- Rushton, J. R. (1976). Socialization and the altruistic behavior of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83, 898-913.
- Spedek, B. (1982). *Early childhood education: A synopti cview*.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New York: Plenum Press.
- Sturgess, W., Dunn, J., & Davies, L. (2001). Young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Links with family setting, friendships, and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5, 521-529.
- Warneken, F., & Tomasello, M. (2007). Helping and cooperation at 14 months of age. *Infancy*, 11, 271-294.
- Weir, K., & Duveen, G. (1981). Furth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social behavior questionnaire for use by teacher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2(4), 357-374.

분석대상 논문

- 고영숙, 임지영 (2012). 유아의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의 정의적 실행기능,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교육*, 21(4), 135-152.
- 구애숙, 이소은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생활과학연구논총*, 8(2), 1-20.
- 김대용, 정규석 (201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부부친밀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267-295.
- 김소영, 신나나 (2019). 과거회상대화 시 어머니의 대화유형 및 대화내용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도덕적 판단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40(3), 69-86.
- 김영옥 (2005).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9(4), 81-105.
- 김재원, 남은영 (2018). 부부관계 유대감, 부부 공동양육 및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10(1), 97-116.
- 김혜순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빈도와 자녀 성숙행동기대가 유아기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64, 155-177.
- 김혜순 (2011). 어머니의 자녀성숙행동기대와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 만족지연능력,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1), 159-181.
- 김혜순 (2013). 어머니의 비합리적 신념과 종교성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79, 45-65.
- 노미나, 권연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력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4), 31-41.
- 문연심 (2004). 부모-자녀관계 유형이 유아의 공감과 조망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4(1), 115-143.
- 박명희, 서봉언, 김민영 (2015). 부모 소득 및 학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동복지연구*, 13(1), 37-54.
- 박선이, 이미숙 (2015). 가정의 문해환경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문집*, 34(1), 1-23.
- 박성혜, 박수미, 우정희 (2009). 어머니의 부모 역할만족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57, 1-21.
- 박희연, 김지현 (2011). 어머니 언어통제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사이버교육연구*, 5(1), 43-69.
- 배선미, 최영희 (2014).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 유아의 정서 표현을 매개로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389-400.

- 배윤진, 임지영 (201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 부모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3(3), 1-22.
- 부예숙 (2012). 유아의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발달장애 학회지*, 3(1), 121-145.
- 서소정 (2006).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의 요구전략, 언어발달, 어머니의 친사회성에 관련된 양육신념 및 사회화전략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87-310.
- 서영민, 김진경 (2009). 외동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다중지능, 부모의 양육태도와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349-369.
- 설경옥, 문혁준 (200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4(7), 1-9.
- 성숙란, 신인숙 (2008).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관한 연구. *과학논집*, 34, 115-128.
- 송승희, 장경은 (2015). 유아의 정서적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6(3), 59-75.
- 양경수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2), 75-84.
- 이미현 (2009). 어머니의 부모역할지능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기 통제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유아체육학회지*, 10(2), 89-101.
- 이상희, 신명숙 (2009). 어머니의 통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자기 통제력의 차이. *부모교육연구*, 6(2), 49-62.
- 이유찬 (2007). 부모의 스포츠 참여가 유아의 운동발달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741-750.
- 이은희 (2019).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 및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347-371.
- 이정애 (2018).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유아 친사회적 행동 및 공감능력과 관계 연구: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4), 5-23.
- 이한애, 송하나 (2008). 어머니와 교사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205-223.
- 장영숙, 강경석, 김희정 (2003).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4(4), 41-53.
- 장영애, 이영자 (2008).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자아개념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187-206.
- 장효은, 김춘경 (2016). 부모의 자녀 애착과 정서지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 기질에 따른 차이분석. *미래유*

- 아교육학회지, 23(1), 127-154.
- 장효은, 김춘경 (2017).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정서지능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3(2), 65-91.
- 정경화 (2011). 어머니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및 인기도의 관계. *인문논총*, 28, 39-56.
- 정계숙, 이은하 (2017).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모 공동체생활 역량 요소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연구. *교육혁신연구*, 27(2), 49-77.
- 조아영, 김혜순 (2016). 어머니의 자녀성숙행동 기대와 유아의 자아탄력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1), 117-137.
- 조안나, 고영자 (2013). 가정 내 전자미디어 사용실태 및 어머니의 미디어 중재 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1), 1-24.
- 조혜영, 배지희 (2014).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심리적 양육환경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2), 91-114.
- 진순옥, 이정숙, 고인숙 (2013). 아버지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참여 및 양육스타일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8(1), 109-126.
- 최미숙, 문신혜, 김치곤, 이경희 (2008). 부모자녀관계와 유아의 성, 또래인기도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54, 99-118.
- 홍혜란, 하지영, 서소정 (2008).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관한 연구-유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기질, 정서지능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사회화 전략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6), 15-33.
- 황혜자, 김향숙 (2005).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원논문집*, 30, 95-122.

1 차원고접수 : 2020. 07. 06.

수정원고접수 : 2020. 09. 17.

최종게제결정 : 2020. 09. 20.

An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of Parental Factors Affecting Pro-social Behavior in Young Children: Focusing on Domestic Journals from 2001 to 2020

Kim, Sohee

Lee, Younwoo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domestic research on parent factors affecting prosocial behavior in young children. To this end, 43 studi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from 2001 to the present were analyzed, focusing on research types, subjects, research tools, parental factors, and mediated and moderated variables.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ost types of studies were quantitative research (97.7%). Data collection methods were most common when survey and observation tests were conducted together (39.5%), but the method types tended to be simplified gradually. Second, among the subjects studied, children aged 4 (42.2%) accounted for most, and the proportions of men and women were nearly identical. In addition, mothers (59.5%) represented a higher proportion than fathers (28.8%). Third, in many cases (63%), the research tools utilized were modifications of the tools used in prior research, and the diversity of research tools used was reduced. The use of standardized tools has not been reported. Fourth, among parental factors, parenting attitudes (52.4%), personal abilities (14.8%), and child relationships (9.8%) showed higher proportions. However, recent studies reported that the personal ability factor and the child relationship factor showed higher increase than the child care attitude factor. Fifth, it was found that factors of young children (63.6%) were most widely used as mediated and moderated variables. Th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 necessity of developing a standardized tool for prosocial behavior is suggested, and basic data for parental education is provided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 in young children.

Keywords: young children, prosocial behavior, parental factors, research trends